

종오리 육성과 생산성 개선 방안

현대사료(주)

홍성학 과장

1. 서언

최근 오리고기 소비의 증가로 사육농가 및 사육수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PS를 종오리로 육성하여 능력이 좋은 육용오리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오리업계에 있어 우수한 종자의 새끼오리를 생산해 양축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품종의 종오리라 할지라도 좋은 사양환경과 사육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양가의 노력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대의 생산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체계화된 오리사양에 대한 매뉴얼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오리관련 일부 대규모 농장이나 일부 사료회사등에서 만든 사양기술지가 시중에 제한적으로나마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종오리 사양에 대한 기술은 아직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철저하고도 과학적인 관

리만 이뤄진다면 최대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이에 충분치는 않겠지만 종오리 육성과 산란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양축가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종오리 사양관리

1) 육성초기관리

이시기에는 육성율에 중심을 두고 온도, 습도, 환기, 급수급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고단백의(CP20%) 사료를 꾸준히 증가(5g/주)시키고 육성후기에 근육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게 중점 관리한다.

또한 오리는 물을 매우 좋아하고 물의 섭취량이 많아 주둥이로 물을 흐트리는 습성이 있으므로 습도보다는 온도에 주의해야 한다.

또 집단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으므로 온도관리에 있어 3주까지는 23-25

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암사를 예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분동은 3주이후에 분동하는 것이 좋으며 분동시 절식하여(예: 오후분동시 오전사료 급이중지)분동함으로써 분동 스트레스를 줄일수 있다.

참고적으로 소화효율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쪽 구석에 모래통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육성초기 단계는 a. 온도관리 b. 충분한 급이 급수면적제공 c. 고단백사료급이 d. 3주후 분동 등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표1 프로그램 및 영양수준>

주령	사료종류	단백질 (%)	에너지 (Kcal/kg)
1	어린오리	21	2,890
2-8	어린오리	21	2,890
9-26	육성오리	15.5	2,910
26주 이후	산란오리	19.5	2,700
* 여름: 고단백 저칼로리 겨울: 저단백 고칼로리			

2) 육성단계

육성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제한급이를 해야한다는데 있다.

사료를 자유로이(무제한급이)했을 때에는 비만도가 높음에 따라 산란시 피크지속이 낮고 산란 경제능력이 떨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종오리 육성시는 사료량보다

는 체중을 기준으로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모든 가금에 있어 나타나는 폐고다현상(강한놈이 강하고 약한놈이 약한것)으로 불균일한 체중이 나타나는 것에 극히 유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육성단계 (8-28주)에 사료 급이시는 바닥에 왕겨대신 톱밥을 깔아주고 사료를 바닥에 뿌려주어 운동량을 늘리고 각종 미생물을 섭취하여 골격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하여 사료양을 조절해주며 적정사육 밀도를 유지해 균일도가 75%미만을 나타낼때는 약추를 분리하여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성초기에 다소작게 키우더라도 골격과 체중이 너무 크게 자라는 것을 방지하면서 육성후기에 충분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표2 종오리 급이량 및 체중>

주령	급이량 (g)	체중 (Kg)	비고
4	20	0.967	*26주이후 1일10g씩 증량급여
8	40.4	2.091	
20	101	2.827	
26	141	3.155	

* 산란시 240g 고정급여

* 수놈체중은 +2% 기준으로 한다.

3) 산란단계

이 시기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단계로 사료는 230-240g을 급여하며 암수

비율을 4:1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평당 사육수수는 7수를 기준으로 하며 난상을 양 바깥쪽으로 진열해 암놈3-4수당 1개를 설치하여 난상에 종란을 생산하게 한다.

특히 깔짚을 충분하게 1일1회(겨울철에는 양을 늘림)갈아주어 종란이 세균에 오염이 되지않게 한다.

종란의 집란은 하루에 4번이상으로 자주 집란하는 것이 좋으며 종란의 보관온도는 18-20도씨, 습도는 75% 정도의 환경에서 보관하며 4-7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시간이 길어질 때는 최소 14-15도씨에서 깨끗하고 환기가 잘 통하는 곳에서 보관해야 한다.

이시기 점등은 1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여름철 열사가 심할때는 사료급이를 오전 점등시(04:30-05시)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론

종오리의 우수한 잠재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새끼오리 공급이 이뤄진다면 현재 늘어나는 오리고기의 소비에 따른 새끼오리 부족현상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육농가는 우수한 새끼오리를 공급받아 최대의 생산성을 올린다면 높은 소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면의 제약으로 상세한 설명보다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서술했으며 내용중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17-63-8200, 011 450-6863)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안내

본회는 오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코자 결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본회 가입은 오리업 종사자면 자유의사에 따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절차는 본회가 발행하는 가입신청서와 가입비를 내면되며 년회비는 사육농가 12만원,유통업자 30만원,부화업자 60만원등입니다.

본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이 주어져서 오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수 있는 동시에 각종 불이익 발생시 협회가 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업계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당부드립니다.

본회납입구좌: 농협 123-01-089430 예금주 한국오리협회